

여수 시내버스 내달부터 노선 조정

2번 노선 오동도 입구까지 연장 운행 등 외지 관광객 불편 해소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여수시가 지역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나선다.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관공서 등에 대한 시내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돌산방면 일부 노선의 불합리한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여수시는 오동도 및 해상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과 수정동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2번 노선을 오동도 입구까지 연장·운행한다.

이와 함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미평방면 6번 버스를 오후 시간대 교육원에 1회 경유토록 하고, 기존 교육원까지 연장운행 중인 7번 노선을 2회에서 3회로 증편한다.

시는 또 현재 소라면 의곡이 종점인 36번 노선을 영락공원묘지 안쪽까지 연장 운행하고, 돌산방면 여러 노선들이 중간지점에서 겹치는 중복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번, 109번, 111번 버스에 대한 시간 조정에 나선다.

이번 노선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

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여수시 교통관리센터 홈페이지(its.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조정 등을 통해 시민과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 외지인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통정책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다수가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심권 순환노선 신설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건강하게 여수관광 하세요...관광객 대상 ‘건강보건소’ 호응

여수시가 최근 여수엑스포역에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보건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보건소는 ‘건강을 위해 달리는 보건소’라는 뜻으로 여수시보건소가 올해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여수시보건소는 국립여수검역소, 여수 전남병원, 여수엑스포역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휴가철을 맞아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와 감염병 정보를 제공했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26일 “무더운

여름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수관광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사랑의 의치사업’ 대상자 내달 5일까지 모집

여수시,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여수시는 “다음달 5일까지 롯데첨단소재와 함께하는 ‘사랑의 의치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의치(틀니)가 필요한 자이며, 거주

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모집인원은 18명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랑의 의치사업’은 롯데첨단소재와 여수시치과의사회,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가 민관협력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치아손상이 심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철을 하지 못하고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는 1억5900만원이며, 올해는 5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치아결손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순천만정원 여름방학 생태체험학습 풍성하네

수피 탁본·생태접 만들기 등 창의·인성 키울 프로그램 다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수피탁본 체험인 ‘나무야 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정원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 내일 러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생태관광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피탁본 체험 ‘나무야 놀자’는 나무 도감원에서 나무 노래 부르기, 나무껍질 탁본 체험, 미술활동 등을 하면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자극하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으로 유치원부터 학생 단체까지 즐길만하다.

생태전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정원의 친환경 건물, 습지, 생태 등에 관한 학습을 ‘스스로 작성하는 체험학습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체험은 어린이들의

고 특성을 알아보는 ‘퍼즐 조각 맞추기’,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자연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창의력 향상 및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8월 2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내 생태관광 체험학습센터에서 사진접수 및 현장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전화(061-749-2863~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드라마촬영장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매주 금·토요일...9월4일까지

순천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드라마촬영장 운영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매표는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집중 기간인 8월에는 고고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장운영기간동안 관광객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비롯한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는 최근 내일로 이용객의 증가와 여름방학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관광객의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하기로 했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올 들어 이날 현재 36만6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관광객이 60% 증가하는 등 순천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하계 내일로 관광객

“친환경농업 위한 미생물 배달합니다”

순천시 내달 11일부터 시범운영

사전예약 받아 주 1회 순회배달

순천시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하고 미생물 구입 대금 수납방법을 개선했다.

미생물은 보존기간이 짧고 상온에서 오래둘 수 없는 특성상 필요량을 수시로 구입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바쁜 농사철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구입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미생물 배달제를

통해 미생물 필요량을 사전에 신청 받아 읍면사무소나 영농조합법인 단체 사무실까지 주 1회 순회 배달하기로 했다.

배달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미생물 대금의 수납방법도 개선해 고지서 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조치했다.

한편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생산 공급중인 미생물은 7종에 연간 380톤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보청기

"불만족 100% 환불"

불만제로에 도전한다!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CHANGHAN HEARING AID COOPERATIVE